



영월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KEPIC 전면적용

- 화력발전소 최초 적용으로 기대감 증대
- 전기협회 박천진 상근부회장, 현장 확인 및 관계자 격려 위해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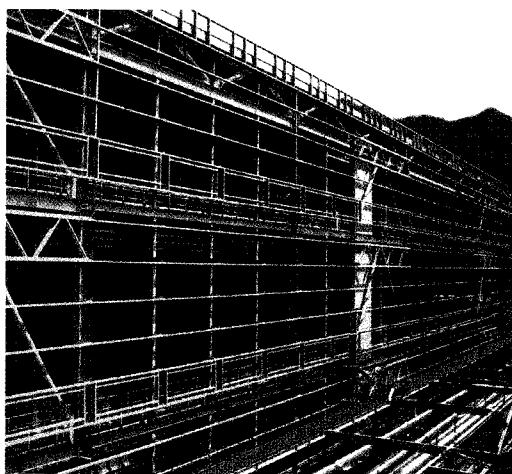
올해 10월 한국남부발전 영월화력발전소 부지에 우리나라 단체표준인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천연가스 발전소가 준공된다.

과거에는 안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대부분 외국표준을 적용하였으나, 영월복합화력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대형 화력발전소 최초로 KEPIC을 전면 적용,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전력산업 분야의 기술적 자립과 국제 경쟁력 향상은 물론 향후 타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건설, 운영, 정비 · 보수 등에도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14일에는 대한전기협회 박천진 상근부회장이 영월천연가스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을 돌아보고 상호 홍보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설비용량 848MW의 영월천연가스발전소(가스터빈 3대, 증기터빈 1대)는 수도권 및 중부내륙의 부하변동에 신속 대응 가능한 첨두부하형 발전소로서 국내 업체가 공급한 최초의 가스터빈 설비로 가동되며, 오는 8월 상업운전을 개시한다. KEA





2010년 장학금 수여식

전기협회는 장차 우리나라 전기계를 짚어지고 나갈 유능한 인재양성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7년 11월 (재)대한전기협회 장학회를 설립, 매년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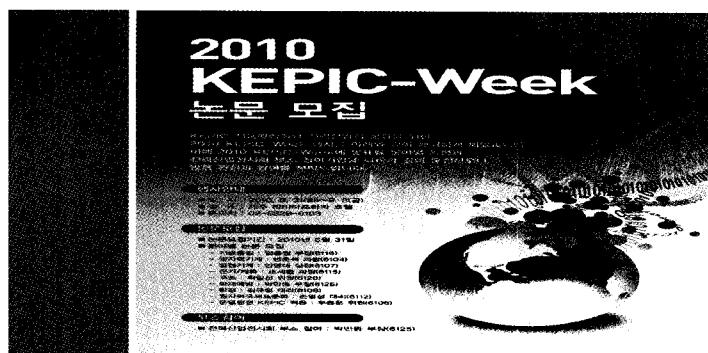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2일 전기회관 회의실에서 건국대학교 3학년 김태진 학생을 비롯한 전국 24개 대학 전기 및 원자력공학도에게 총 91,000,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2010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대한전기협회 장학회는 2010년 4월 현재까지 총 654명에게 1,586,898,000원의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그동안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장학생(619명/1,325,317천원)을 포함해서 ‘94년 이전까지 지급해 오던 해외 유학생(19명/232,331천원),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16명/29,250천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였다. KEA



‘2010 전기계 축구리그’ 개막

대한전기협회 축구팀은 지난 4월 20일 서울시 관악구장에서 펼쳐진 ‘2010 전기계 축구리그’ 개막전 기초전력연구원과의 경기에서 5:1로 승리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지난 시즌 챔피언인 전기협회는 올해 역시 우승을 목표로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다. KEA



2010 KEPIC-Week 논문 모집

대한전기협회는 KEPIC 적용 활성화와 전력산업계 화합을 위한 '2010 KEPIC-Week 논문'을 오는 5월 31일까지 분야별(▲기술품질 ▲원자력기계 ▲발전기계 ▲전기/계측 ▲구조 ▲화재예방 ▲환경 ▲원자력국 제표준화 ▲운영원전 KEPIC 적용)로 모집한다.

한편, '2010 KEPIC-Week 행사'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사흘간 제주도(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EA

* 논문 / 행사 관련 문의 – KEPIC처 변훈석 과장(02-6328-6104), 이은선 대리(02-6328-6103)



'제45회 전기의 날' 기념 201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샵 성료

'제45회 전기의 날' (2010. 4. 10)을 기념해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제주시에서 개최된 '2010 전기설비 기술기준 워크샵' (지식경제부 주최)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 녹색기술,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제도를 소개하고 기술 기준 선진화 방향 및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져 해당분야의 이해를 돋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매년 4월 개최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샵은 전기설비의 안전은 물론 전기산업의 효율화와 국제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KEA

